

1. 내 일상 생활 속에서 언어습관을 돌아보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물이다.”, 어디선가 흘러가는 중 들었지만 항상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구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속에 사회의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응원한다 등 여러 좋은 말들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만 쓰지 않는다. 최근 뉴스에서 초등학생들끼리 각자 사는 곳을 가지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크게 보도 된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학생들의 잘못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이런 차별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사실 우리는 차별적 표현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최근 많이 시행되는 인권교육,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등의 효과도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표현만이 가지는 맛을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핑계이다. 나도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런 이유로 차별적 표현을 신중하지 않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있다.

처음엔 어려웠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언어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나은 상상력은 항상 존재한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나의 화난 감정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고, 이는 오히려 더 건강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않고 대화를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독서모임 등의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 많은 고민을 나누며 차별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고민 속에서 더 나은 언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는 나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리라 생각한다.

2. N번방 사건, 우리의 무관심 속에 발생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충격 속에 빠뜨린 범죄가 발생했었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성착취가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성착취는 방식과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일들이다. 하지만 이는 뿌리뽑아야할 범죄이다. 사건 발생 이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관심 속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런 범죄사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고 신고하고 연대했다면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듯 이런 범죄도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발생한다. 사실 외면도 아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기사 속에서 발견한 댓글들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들이 당할 만해서 당했다거나,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등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충격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해주지 못할망정 피해자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 이런 반응들이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가해자를 더 당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듯 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시선이 두려워 가해자들의 성착취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인 것이다.

구속된 가해자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악마와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정말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하는 말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악을 행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정확한 통찰이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 이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며, 우리는 동료시민으로써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결국 구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더 나은 학교 공동체는 가능하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까지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헤어진다. 이러한 곳에서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기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일들이다.

이제 학교를 곧 떠나게 되는 졸업학기 학생이지만, 나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임원진도 역임을 했었고, 여러 단체와 수업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나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모두가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나의 동아리는 토론동아리였는데, 학기별 세미나를 통해 상대의 원치않는 외모평가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왜 무례한 행동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방법 뿐아니라, 나도 내가 언제든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언제든 지적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물론 내가 고학번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쉽지 않으리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대학생활이란 학교 수업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을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음을 느낀다. 내 위의 선배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고 있고, 나도 내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교 공동체를 남겨주고 떠나고 싶다. 남은 학기 이제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되어 남은 학기동안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졸업하게 될텐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여 나의 후배들에게 더 나은 공동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번 교육도 꼭 이수하기를 권유하겠다.